

은 국민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조용하겠어요?
 뒷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의식도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며 사는 것이
 '隨處作主 立處皆眞' 입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제855호 2011년 9월 28일 수요일 (음력 9월 2일 · 불기 2555년 · 주간)

주지없는 사찰 관리규정 마련

조계종 전체 사찰중 <25%>

조계종 중앙총회 제187회 임시총회 20개 현안 다뤄

제187회 조계종 중앙총회 임시회가 종법 제·개정과 포교원장 선출 등 20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폐회했다.

9월 19~20일 열린 임시총회는 중앙총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가 구성된 이후 첫 총회로 각종 종법 개정이 20개에 달하는 현안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다뤄졌으며 종법 6개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그동안 제정과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던 사찰의 등록과 관리의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2회에 한해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계종 등록사찰 중 주지가 임명되지 않은 사찰이 4분의 1에 이르고 이중 대부분이 사설사암이던 실정에서 사찰관리인 임명과 사설사암 관리의 모범이 되는 사찰법 제정은 조계종 사찰 관리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출가한 스님들과 이전 출가한 스님들 사이의 4년 승랍 기산 공백 논란도 '승려법' 개정을 통해 기본교육을 이수 후 기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종단 기본교육을 권장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 개정된 승려법에서는 승려분한 미신고 승적이 말소된 스님은 특별분한신도가 아니라더라도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언제든지 승적 말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종도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중앙총회는 재심회계위원으로 정후 종상 해담 정안 스님을, 초심회계위원으로 세영·선법 스님을, 법규위원으로 도완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대종사 특별전행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원로의원 인환 정관 암도 월탄 근일 스님의 특별전행 심사를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불교시민단체들도 법안 개정을 환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일 논평을 내고 "법규위원회의 권한 범위 확정과 승랍 기산문제 해결, 사찰관리 법적 근거 마련, 포교원장 선출 등 인사간의 원만 통과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종단 운영에 대한 중화역할이 드러난 매우 고무적인 중화였다"고 평했다.

하지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중앙총회의 불징계 특권의 현상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실망스럽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재촉 구했다. **관련 기사 2면**

노덕현 기자



천년의 지혜 담은 그릇 한눈에

9월 20일,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홍선)은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을 주제로 2011년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 특별전의 개막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박물관과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도서관이 공동주관 하며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개막식 후 박물관 전시공간을 둘러보는 모습.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자승 스님 등 北 서열 2위 만나 환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대 종단 지도자 공동 평양 방문

남북 교류 사상 최초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평화를 향한 남북 종교인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9월 21일 방북길에 나섰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내 2인자로 알려져 있다.

방북한 남북 종교계 인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 소속 종단지도자들이다.

북측에서는 장재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강영섭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장,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강철원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이들을 반겼다.

남북 종교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남북 종교인 사이의 대화·협력을 강

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등 통일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방

북 전 인천공항에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갖고 있는 이질감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방문은 남북의 이질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위법망구 정신으로 소임에 최선을"

제6대 포교원장에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선출

조계종 제6대 포교원장에 양주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는 9월 19일 제187차 임시회에서 제6대 포교원장에 지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지원 스님 임기는 제5대 포교원장 해종 스님의 임기인 11월 12일부터 5년간이다.

지원 스님은 선출 직후 "제6대 포교원장으로 추천해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만장일치로 인준해준 제15대 중앙총회 의원스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종단 포교발전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지원 스님은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3월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칠장사, 법흥사, 삼보사 주지와 제9·14·15대 총회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덕현 기자

합천 해인사서 대장경 천년 축제 개막

11월 6일까지 45일간 계속

두관 경남도지사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장경 1000년을 기념하는 '2011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시작됐다. 대장경 진본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11월 6일까지 45일간 계속된다.

합천 해인사와 경상남도, 합천군은 9월 23일 합천 해인사 일원에서 대장경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사전행사와 개막식 행사, 식후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전행사에서는 행위예술가인 강만홍 서울예대 교수의 대장경판을 이용한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가 열렸다.

본행사인 개막식은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밀운 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호계원장 범등 스님, 포교원장 해종 스님과 김황식 국무총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대장경축전은 대장경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학술행사로 꾸며졌다. 주행사장내 대장경천년관에는 대장경전시실과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 경판과 국보 제206호 <화엄경 변상도> 경판 2점 등을 전시한 보존과학실이 운영된다. 또, 해인사 인근에는 가야산 횡류동 계곡 6km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해인사 소리길'도 조성됐다.

이 외에도 행사에서는 대장경 이운행렬 퍼포먼스와 대장경 판각·인경 체험, 장경판전 모형조립 등 체험행사와 대장경 뮤지컬, 해외공연팀의 상설공연 등이 45일간 계속된다.

조동섭 기자

종교평화선언은 이 시대의 요청이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協 종교평화선언 적극 지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가 추진 중인 종교평화선언(초안)에 조계종 교구본사 스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범)는 9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제18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종교평화선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보냈다. 최종발표 때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화쟁위 총무위원인 법안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은 "이번 선언은 종단 내적으로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기초 아래 불교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 것이고 밖으로는 종교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교 차원의 처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불교계 꿰뚫어. 불교계가 종교평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렇게 주도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잘 마무리돼 종교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종교평화 선언은 시대적 요청에 맞다. 종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나서야 하고 교구본사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교평화선언(초안)은 중앙종단 총회 교구본사 직영및지할교구 교역자 신도및포교단체 불교시민단체 종단협 등의 대중공사를 거치고 원로회의, 종정예하의 증명을 거쳐 완성된 후에는 총무원장 스님 주재로 종단 차원의 발표식을 개최한다. **관련 기사 2·3면**

조동섭 기자

855호 CONTENTS

조계종 제187회 중앙총회 종헌종법 제·개정 내용	2
종교평화선언(초안) 토론회 박원순 변호사 출마의 변	3
인터뷰 봉선사 신임주지 정수 스님	4
현장속으로 해병대 전동사범플래시	5
2011 빛고를 아카데미 개막 특집 · 종교간 대화	11 · 17

능인당
 능인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제1회 2011남도문화대축전

확! 펼쳐라~

2011. 10. 28(금) ~ 10. 31(월) 광주염주종합체육관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저절로 생활'이 '우리것, 좋은것'을 널리 알리고자 **제1회 2011 남도문화 대축전**을 펼칩니다.

지역별 '전통문화 명품전시장'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예술 문화 공연' 등 지역 최대 최고 축제의 장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절로생활 대표전화 : 1544-9955, 062-655-7577
 후원계좌 : 농협 302-0450-1729-61 저절로생활
 홈페이지 : www.ndfestival.co.kr

주최 | 사)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 **저절로생활**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KBC**

- 남도전통문화 · 명품 박람회 10.28~10.31
- 친환경 특산물 직거래 장터 10.28~10.31
- 유네스코 지정 평화예술단 공연 10.28~10.29
- 10월의 선물 '세대공감' 콘서트 (무료) 10.30
- 침 · 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 초청 10.31